

<서평>

한국 학자의 인도네시아 연구,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다!

Hyung-jun Kim dkk., *Indonesia dalam Transisi: Catatan
Para Indonesianis Korea*, Yogyakarta: UAD Press, 2023.

정 정 훈*

1. 위대한 말레이어, 하지만 여전히 낯선 언어

일찍이 책의 저자 중 한명인 신윤환(2008)은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이하 인도네시아어)를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동남아의 국제어”로 칭송한바 있다. 인도네시아어가 무엇보다 배우기가 쉽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내세웠다. 또한 평등, 높은 성감수성, 시장에서 확산된 소통성이 인도네시아어의 위대함을 재차 확인시킨다고 주장한다(신윤환 2008: 83-85).

분과 학문을 넘어 지역연구자의 현지어 구사는 학문적 능력과 함께 학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현지에서 자신만의 정보를 찾고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대략 4억 명의 사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 서강대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blue3j@gmail.com

르, 티모르-레스테의 국민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럴 듯 동남아의 국제어로 인도네시아어는 꽤 많은 사람과 국가에서 사용되고 언어 습득의 장벽이 낮다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한국인에게 낯선 언어이다. 인도네시아어를 일상에서 접하는 기회가 거의 없고 언어 습득의 동기를 찾기도 여러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분명하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책은 아니다. 도리어 인도네시아의 연구자와 대중에게 한국 학자들이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에 적합하다. 즉 인류학 관련 대중서 중 하나인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를 응용하여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도네시아 사회’가 이 책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문구이다.

이 책이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것 제외하고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사회의 깊은 내면을 이해하는데 여러 장점을 가진 책인 것은 분명하다. 다행히 다양한 번역사이트는 인도네시아어를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이 가능하기에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더욱이 저자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되기 이전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논문이 있기에 세부적인 내용 검토도 가능하다.

2. 8인의 저자, 현장에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찾다.

‘비네까 똥갈 이까(Bhinneka Tunggal Ika)’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상징인 ‘가루다 판짜실라(Garuda Pancasila)’에 새겨진 공식 국가 표어이다. 옛 자바어에서 유래한 문구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언어, 종교, 종족, 믿음 체계의 다양성은 인도네시아 사회의 특징이지만 새로운 국가 건설 과정에서 통합 역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은 이 책의 첫 번째 특성과 관련된다. 이 책의 8명의 저자가 논의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는 분과 학문별 논지를 펼치는 방식과 연구지역과 대상의 다양성이 분명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도네시아 사회를 다방면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지만, 한편으로는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글을 완벽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물론 이 책의 제목인 『전환기의 인도네시아』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논의시기에 대한 통일성은 주목된다. 민주화 이후 정치적 이행을 겪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에 주목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문구 중 하나인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 저자들이 관련 자료를 획득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수라바야, 술라웨시, 자카르타, 말루쿠 등지에서 관계자들과 공식적·비공식적 인터뷰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획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즉 수하르토의 32년 장기 독재 집권이 끝나가는 1998년 전후 사회적 혼란, 어떤 미래가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군사정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현실에서 현지조사에 이루어졌다. 저자들의 현지조사는 결국 국가와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을 좀 더 내밀하게 그려내고 맥락적 분석을 가능케 했다.

구체적으로 신윤환은 1990년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기업에서 벌어지는 노사관계의 실상과 변화 과정에 주목한다. 특히 ‘중간착취자’로서 한국인 이미지와 비인간적인 ‘한국적 경영방식’이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이에 대해 효과적인 담론 투쟁을 펼친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전제성은 수하르토 체제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투쟁 역량이, 민주화 이후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과

함께 저항 양상의 변화를 촉발한다고 역설한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제조 기업 중 하나인 마스삐온의 노동조합에 주목하고, 이들이 민주화 이후 연속적인 파업과 협상을 통해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성공한 과정을 검토한다. 마스삐온 노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노동자 리더십의 등장은 결국 노동운동이 ‘노동계급의 운동’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기여함을 확인시켜준다.

최난경은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이행기 이후의 정치적 과정 검토를 위해 과거의 정치체제와 정당의 관계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독립 이후 다당제로 시작된 인도네시아 정치체제의 실패는 결국 수카르노와 수하르토에 의해 권위주의 정권 출현으로 이어졌다. 권위주의 정권은 합법화라는 미명하에 정당을 억압하는 과정을 통해 집권의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과거 정권의 집권 방식은 1998년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인도네시아의 정치체제와 정당에 지속적인 영향력으로 귀결되었음을 논의한다.

김형준은 1999년 북말루쿠주 할마헤라섬에서 발생한 무슬림과 기독교도간의 충돌 이후 종교 전쟁설이 공적 담론의 전면에 대두되고, 기독교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슬람 부흥과정에서 나타난 일상에서 이슬람화의 노력은 초기의 개인적 믿음의 영역에 집중하였지만 점차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어 발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슬림과 기독교도와의 관계가 전면에 등장하고 개인적 일탈과 상대 종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종교적 소수인 기독교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비록 이슬람 부흥의 문제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상당수의 무슬림들은 여전히 상대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 부흥의 문제, 즉 경전 중심적 경향을 갖는 무슬림의 주장이 공식적 담론에 등장했음은 기독교도와의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여타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음을 밝

하고 있다.

김예겸은 북술라웨시에 위치한 미나하시 지역의 또모혼 공동체 사례 연구를 통해 마을 주도의 교역활동에 주목한다. 교역활동에 대한 다양한 이론, 교역활동의 역사적 발전 과정, 교역과정에서 여성 참여 그리고 또모혼 지역의 교역활동의 유형을 검토한다. 또모혼 지역의 교역활동은 기존의 시장 중심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을 중심 연구를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송승원은 술라웨시섬 남동쪽에 위치한 부튼섬 바우바우시의 짜아-짜이족이 한글을 채택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한글의 수입은 지역 발전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측면으로 이해된다. 이는 수하르토 정권의 몰락 이후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역 자치 운동의 일환으로도 이해된다. 짜아-짜이족의 한글 채택 프로젝트는 한 지역이 지방자치에 대응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지원은 재임 중 인권 침해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던 수하르토 정권이 민주화 이후 어떤 방식으로 과거사에 대한 기소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국가인권위원회(Komnas-HAM)는 신질서 시기 독재자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하지만 수하르토 사임 이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민주화 이행기 기간이었고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의 미흡한 역할 그리고 과거 정권 관계자들의 여전히 강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과거사에 대한 단죄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다른 국가와 유사하게 인도네시아 역시 과거 청산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딜레마를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은숙은 인도네시아의 거대 이슬람 조직 중 하나인 무함마디아(Muhammadiyah) 사례를 통해 인도네시아 이슬람 조직과 정치의 상관성을 논의한다. 특히 민주화 이후 무슬림 사회 및 교육 기관이 어

편 방식으로 선거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기존의 정치 관행과 달리 무함마디아는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해 스스로 정당을 구성하거나 다른 정당을 지원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자제한다. 특히 민주화 이후 선거 실패의 경험은 무함마디아 운영에 있어 당파색이 강한 정치로부터 조직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 과정에서 무함마디아는 정치적 이익보다 종교적·사회적 의무에 집중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영향력을 획득하는 방식을 모색하였다.

김형준과 전제성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인도네시아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관련 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에 관한 양적 분석을 통해 20여 년간 관련 연구와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 졌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한국외대와 비한국외대 그리고 인문사회과학과 이공계열 연구자들의 분리라는 현상을 마주하게 됨을 지적한다. 이의 극복을 위하여 저자들은 초대학적으로 연결된 후속 세대의 양성, 학문계열 간 접점을 형성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 추진, 대중 접근성이 높은 단행본 집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3.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도네시아 사회

8명의 저자에 의해 작성된 9개의 글이 수록된 이 책은 내용적 그리고 방법적 측면에서 여러 특징을 공유한다. 내용적 측면에서 수록된 각각의 글은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된 후 민주화 이행기를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회를 다루고 있다. 민주화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샘솟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권위주의 체제의 질은 그림자가 여전히 사회 전반에 드리워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준다. 방법적 측면에서 ‘참여관찰(participatory observation)’이 연구 자료 수집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외부자적 관점’을 가진 연구자가 현장에 있음으로써

(being there) 연구대상과 상호 작용을 실천했다. 저자들이 다루는 내용적 그리고 방법적 측면의 특징은 이 책이 가지는 여러 의의와 관련된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적 현안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직접적이면서 선명하게 저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인권 침해와 관련된 과거사, 노사관계의 실상, 무슬림 조직의 선거 참여 문제, 무슬림과 기독교간의 갈등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금기어이자 성역으로 간주되는 부분이다. 물론 인도네시아 학자들 역시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실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뚜렷한 의사를 내비치지 않는다는 수하르토의 하야 그리고 사망 이후에도 그의 정치 행위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엇갈린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논의하기 쉽지 않은 주제이다. 이럴 듯 이 책은 외부인이 상대적인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한 사회를 관찰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연구에 뜻이 있는 학문후속세대들에게 이 책은 이정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연구 수행에 있어 참여관찰을 수행한 점은 결국 내부자가 경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더욱이 기존의 내부자가 인도네시아 사회의 ‘상식’과 ‘당연함’을 일정하게 낯선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장점 또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신용환과 전제성은 각각 인도네시아의 한인기업과 현지기업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기업의 여러 행위에 대해 절대적 약자가 아닌 저항과 투쟁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언론에 의해 알려지지 않거나 때로는 일방적으로 매도되어 보도되었던 노동자들의 상황을 심층면접조사와 전문적 분석을 통해 ‘실제 일어난 일’을 알리고 있다. 이 책 저자의 글은 학문후속세대에게 향

후 연구기획과 실행단계에서 현지어와 참여관찰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 시켜준다.

끝으로 이 책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의는 한국 학자에 의해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첫 사회과학 저작물이라는 것이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양국에서는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학술 분야 역시 포럼과 학술대회 등이 진행되었고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교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학술분야 교류 증진 방안이다. 양국 학자들은 학술분야 교류에 있어 비대칭성과 상대국의 정보 부족을 염려한다(한국동남아학회 2023).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지만 반대로 한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함을 지적한다. 또한 양국 학자들의 직접적인 교류 부족으로 한국 학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반대로 인도네시아 학자들은 한국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함을 토로한다. 이 책이 양국 학자 교류의 비대칭성과 정보 부족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신윤희. 2008. 『동남아문화 산책: 신윤희의 동남아 깊게 읽기』. 파주: 창비.
- 한국동남아학회. 2023.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포럼 결과 보고서: 논의요약 및 정책제언.”
- 한국문화인류학회. 2006. 『낮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서울: 일조각.